

서울대 가족과 관악주민을 위한 화요음악회

09.16 Jania Aubakirova, 장형준 교수 피아노 듀오 연주

10.14 장형준 교수, 이형민, Yunjie Chen 피아노 연주

10.21 SNU 목관 앙상블 (SNU flute ensemble, SNU woodwind octet, SNU saxophone quartet)

10.28 학생 오디션 팀 (랑데뷰 콰르텟, 이디스 콰르텟)

11.04 CMB 567 국악과 현대음악의 만남



문화관 중강당 (73동)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출구로 나와서
5613번 버스로 환승 후

문화관 본부 앞에서 하차하세요





SNU
TUESDAY
CONCERTS



2014년 2학기 서울대 가족과 관악주민을 위한

화요음악회

2014. 09.16~11.04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73동)

주최 서울대학교 학생처 주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획홍보실 문의 02-880-7903 전석무료

SNU TUESDAY CONCERTS



화요음악회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관할 구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2014년도 2학기 서울대학교 화요음악회

무료예술공연 행사로 음악회를 통해 국·내외 저명한 연주자들의 연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동·서양의 음악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관객들로 하여금 음악을 보다 친숙하고 가까이 받아들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1994년 1학기 '수요음악회'의 명칭으로 시작된 본 음악회는 1996년 2학기부터 '화요음악회'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09.16 오후4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73동)

제1회 **Jania Aubakirova, 장형준 교수**
피아노 듀오 연주

Program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듀엣 모음곡 op.11

1. Andantino, B-flat minor
2. Allegretto, E-flat minor
3. Andante cantabile, B minor
4. Presto, E minor
5. Adagio sostenuto, D-flat major
6. Maestoso, C major

드보르작

슬라브 무곡, op. 46

1. Furiant. Presto (C major)
2. Dumka. Allegretto scherzando-Allegro vivo (E minor)
3. Polka. Poco Allegro (A ♭ major)
4. Sousedská. Tempo di menuetto (F major)
5. Skocná. Allegro vivace (A major)
6. Sousedská. Allegretto scherzando (D major)
7. Skocná. Allegro assai (C minor)
8. Furiant. Presto (G minor)



Jania
Aubakirova

Piano

자니아 아우바키로바는 카자흐스탄의 여류 피아니스트로, 여러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카자흐스탄의 자랑거리이다. 그녀는 러시아 피아니스트 Lev Vlasenko와 Mikhail Pletnev에게 사사받았으며,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콘서바토리에서 수학하였다. 현재 자니아 아우바키로바는 중앙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피아니스트이다. 그녀는 카자흐스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두각을 내 보이고 있다. 특히, 그녀는 1983년 세계적 콩쿠르인 The Marguerite Long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에서 그랑프리상 및 특별상을 받을만큼 국제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1985년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Chamber Ensembles of The Long-Thibaud Competition에서도 그랑프리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그녀는 많은 음악가들 및 연주단체들과 협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Mikhail Pletnev, Valery Gergiev, Alexander Sladkovsky, Alexander Vedernikov, Denis Shapovalov, Marat Bisengaliev, Alexander Trostyanskiy Christophe Mangou와 콜라보 작업을 하였고, 현악 4중주단(Danel)과, 그리고 Mariinsky Theatre Symphony Orchestra, Russian National Orchestra, Symphony Orchestra of French Radio, Symphony Orchestra of India, English Chamber Orchestra, Israel Chamber Orchestra 등 각국의 유망한 오케스트라와 성공적으로 협연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교육적 작업의 일환으로 콘서트를 다수 개최하였다. 1983년부터 카자흐스탄 국립 콘서바토리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1997년에는 이 콘서바토리의 총장이 되기도 하였다. 그녀의 열성적인 교육철학과 그녀가 개최한 수많은 콘서트 덕분에, 카자흐스탄 국립 콘서바토리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1998년 그녀는 카자흐스탄의 첫 독립 음악기관인 "Classica"를 창단하였다. 그 이후로, 이 기관은 많은 음악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다. "Classica"에서 2000년에 만든 첫 국제 피아노 콩쿨은 중앙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콩쿨로 유명하다. 2001년 그녀와 "Classica"는 재능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The Raising Stars of Kazakhstan"도 창단하였다.



장형준

Piano

서울시 출생한 피아니스트 장형준은 미국 뉴욕의 맨하탄 음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피아니스트 Earl Wild, Constance Keene에게 사사하였으며 Abram Chaisins 생전 그에게 지도를 받기도 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내, 국외에서 독주, 협연, 실내악 연주로 폭 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등지에서 수차례 독주회를 개최하였고 Walter Hendl, Tadaaki Otaka, Thomas Sanderling, Paul Freeman의 지휘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러시아 국립 교향악단, 체코 국립 교향악단, 오사카 심포니 오케스트라, 차타와 심포니 오케스트라, 빅토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런던의 바비칸 센터, 동경 문화회관, 오사카 심포니 홀, 차타와 음악제 및 프라하, 모스크바 등지의 주요 홀에서의 협연을 통해 그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으며, KBS 교향악단, 서울 시향, 수원 시향,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서울 바로크 합주단, TIMF Ensemble 등과 국내에서 협연하였다. 그는 KBS교향악단과의 협연으로 본 윌리엄스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및 2004년 올해의 예술상 수상 작품인 이강일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비오는 날'을 TIMF Ensemble과 국내 초연하였다. 그는 클리블랜드 국제 피아노 콩쿨, 더블린, 상하이 등 여러 국제 콩쿨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교육자로서도 이스트만 음대, 맨하탄 음대, 뉴욕 주립대학, Royal Scottish Academy, Royal College of Music, 만하임, 드레스덴 음대, 베이징, 상하이, 사천음대 등지에서의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그의 활동 영역을 넓혔다. 그는 모차르트, 프로코피예프, 차이코프스키, 거쉰, 슈니트케의 피아노 협주곡을 프로알테, 칼튼 클래식, Warner Music을 통해 CD로 출판하였다.

10.14

오후4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73동)

제2회 장형준 교수, 이형민, Yunjie Chen
피아노 연주

Program	Mozart	Eine Kleine Nachtmusik 제1악장, for 4 hands	Yunjie Chen & 이형민
	Mozart	Rondo	Yunjie Chen (독주)
	Liszt	La Campanella	Yunjie Chen (독주)
	Chopin	Etude op.10 no.5	Yunjie Chen (독주)
	Prokofiev	Étude no.1	Yunjie Chen (독주)
	Ravel	Ma Mere l'Oye for 4 hands 중, #1,3,5	이형민 & 장형준
	Liszt	Mephisto Waltz	Yunjie Chen (독주)
	Liszt	Hungarian Rhapsody 중 #2	Yunjie Chen (독주)
	Johann Strauss	Radetzky march for 6 hands	Yunjie Chen, 이형민, 장형준

Profile



장형준 Piano

서울서 출생한 피아니스트 장형준은 미국 뉴욕의 맨하탄 음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피아니스트 Earl Wild, Constance Keene에게 사사하였으며 Abram Chaisins 선생 그에게 지도를 받기도 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내, 국외에서 독주, 협연, 실내악 연주로 폭 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등지에서 수 차례 독주회를 개최하였고 Walter Hendl, Tadaaki Otaka, Thomas Sanderling, Paul Freeman의 지휘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러시아 국립 교향악단, 체코 국립 교향악단, 오사카 심포니 오케스트라, 차타와 심포니 오케스트라, 빅토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런던의 바비칸 센터, 동경 문화회관, 오사카 심포니 홀, 차타와 음악제 및 프라하, 모스크바 등지의 주요 홀에서의 협연을 통해 그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으며, KBS 교향악단, 서울 시향, 수원 시향,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서울 바로크 합주단, TIMF Ensemble 등과 국내에서 협연하였다. 그는 KBS교향악단과의 협연으로 본 윌리엄스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및 2004년 올해의 예술상 수상 작품인 이강울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비오는 날'을 TIMF Ensemble과 국내 초연하였다. 그는 클리블랜드 국제 피아노 콩쿨, 더블린, 상하이 등 여러 국제 콩쿨에 심사위원으로 참여 하였으며 교육자로서도 이스트만 음대, 맨하탄 음대, 뉴욕 주립대학, Royal Scottish Academy, Royal College of Music, 만하임, 드레스덴 음대, 베이징, 상하이, 사천음대 등지에서의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그의 활동 영역을 넓혔다. 그는 모차르트, 프로코피예프, 차이코프스키, 거쉰, 슈니트케의 피아노 협주곡을 프로알테, 칼튼 클래식, Warner Music을 통해 CD로 출판하였다.



이형민 Piano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우등 졸업했으며, 미국 이스트만 음대에서 전문연주자 자격증(Performer's Certificate)을 획득하였고, 피아노 연주 및 문헌 전공으로 1996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녀는 삼익콩쿨 대상, 틴에이지 콩쿨 1등, 전국학생콩쿨 대상을 포함하여 국내외의 주요 콩쿨에 입상하였으며, Corpus Christi 국제 콩쿨 2위, Max Landow Memorial Scholarship Award, Liberace Scholarship Award를 수상하였다. 그 후 미국 카네기홀(Carnegie Recital Hall)을 비롯하여, 한국, 영국, 오스트리아, 폴란드, 독일, 프랑스, 스위스, 루마니아, 체코, 중국, 일본, 필리핀 등지에서 수십 차례 독주회 및 실내악 연주를 통해 전문연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져 왔으며, 빈 심포니, 폴란드 국립 방송 교향악단, 체코 실내악단 등 정상급 오케스트라를 비롯, 텍사스 에벌린 필하모닉, 폴란드 브라쉴와프 필하모닉, 서울 심포니, 코리안 심포니(김대진의 음악교실 & 예술의전당 기획 11시 콘서트), 대전시향, 원주시향, 서울 챔버오케스트라, 프라임 필하모닉(정기연주 & 지방 순회연주),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 심포니에타 등과 협연을 통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2011년 중국 심천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 대회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심천교향악단과 중국과 홍콩 순회연주를 성공리에 마쳤다.

1997년에는 폴란드 국립 방송 교향악단(Polish Radio National Symphony Orchestra)과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으로 CD를 제작하였으며(Vision Classics, 지휘:함신익), 2000년에는 KBS 영상사업단 주최 KBS 1FM "한국의 연주자 시리즈" 독주자로 선발되어

독집 CD를 제작, 신나라 뮤직 레이블로 출시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창단되어 14년째 활동하고 있는 앙상블 “끌레이오”가 2008년 KBS 영상사업단 주최 KBS 1FM “한국의 연주자 시리즈” 실내악팀으로 선정되어 녹음, 아울로스 레이블로 출시되었다. 현재 그녀는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로 매년 독주회를 비롯하여 수십 회의 연주회를 가지고 있으며, SK케미칼 그리움홀 예술감독, 앙상블 ‘끌레이오’, ‘그리움피아노 콰르텟’ 멤버로 활동 중이다.



Yunjie Chen
천원지에
Piano

12세의 나이로 중국 국립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천 원지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 및 세계 무대에서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우수한 음악성과 뛰어난 연주실력을 지닌 젊은 피아니스트이다.

SBS 라디오 텔레비전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함께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협연무대에서 찬사를 받은 그는 영 콘서트 아티스트 수상자로서 워싱턴DC의 케네디 예술센터, 뉴욕 92번가 Y 문화센터, 보스턴 이사벨라 스투어트 가드너 박물관에서의 데뷔무대를 모두 성공리에 마쳤다. 중국 주요도시에서 가진 수많은 독주회는 물론, 상하이 오페라 교향악단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중국 교향악단과 제2번을 협연하였으며 최근에는 미국 켄터키주 퍼두커 교향악단과 리스트 협주곡 제1번을, 아칸소주 포트스미스 교향악단과 모차르트 협주곡 제20번을 연주하며 활발한 연주경력을 쌓아왔다.

또한 워싱턴DC와 남서 미주리 주립대학교에서 독주회를 가졌으며, 가와이 악기사의 후원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독일에서 독주회 투어 일정을 통해 유럽과 북미 관중들에게 그의 음악성을 충분히 발휘했다. 또한, 2008년 베이징에서 현지 미국대사 클라크 램트 2세의 관저에 초청되어 연주회를 가졌으며, 2011년에는 금호아트홀 초청 세계적인 첼리스트 정명화와 듀오 연주도 가진 바 있다. 연주활동 외에 콩쿠르 수상도 꾸준히 쌓아온 그는 중국 국제 피아노 콩쿠르, 독일 에틀링겐 국제 콩쿠르, 영 콘서트 아티스트 모리스 클레어몬트 피아노 상에서 우승을 하였으며 부조니 콩쿠르 결승과 산탄데르 콩쿠르에서 명예상을 수상, 그리고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도 참여한 바 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3위에 오른 그는 힐튼 헤드 국제 콩쿠르에서도 메달을 차지하였다. 또한 2009년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인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같은 해 톤티보 국제 콩쿠르에서 4위 수상과 더불어 모차르트 최고 해설 연주상인 세르게 아렌드 상, 그리고 쇼팽 최고 해설 연주상인 제르멘 무니에 상을 모두 석권하였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2010 지나 박하우어 국제 콩쿠르에서 4등을 차지한 그는 같은 해 10월, 한국에서 열린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하는 등 전 세계 국제 콩쿠르에서 그의 실력을 당당히 알렸다. 2011년부터 중국 센트럴 콘서바토리의 최연소 교수에 임용되어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며, 2012 클리블랜드 국제 영 피아니스트 콩쿨, 2013 중국 주장 피아노콩쿨에 심사위원으로도 위촉되었다.

10.21 오후4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73동)

제3회 SNU 목관 앙상블

(SNU flute ensemble, SNU woodwind octet, SNU saxophone quartet)



윤혜리 Flute

윤혜리는 1992년, 스위스 제네바 콩쿠르에서 관악부문 한국인 최초 입상을 하며 유달리 관악부문에 취약했던 당시 한국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후 뉴욕 필하모닉, 보스턴 심포니 등 메이저 교향악단의 단원 배출구로 유명한 뉴월드심포니 오케스트라 오디션 우승을 통해 한국 관악 연주자로는 드물게 세계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그는 신에 플루티스트로 촉망 받던 시절 거장 장 피에르 랑팔로부터 '가장 이상적인 소리'라는 격찬을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연주 활동뿐만 아니라 국제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플루티스트로 맹활약 중이다.

윤혜리는 커蒂斯 음악원에서 줄리어스 베이커를, 파리국립음악원 대학원 과정에서 알랭 마리옹, 그리고 비젤 아카데미에서 피터 루카스 그라프를, 맨해튼음대에서 지니 백스트레서를 사사하였다. 스위스 제네바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3위에 오른 윤혜리는 필라델피아 콩쿠르 1위, 뉴욕 플루트 콩쿠르, 울가 쿠세비스키 콩쿠르 우승과 더불어, 국내의 이화경향 콩쿠르에서 두 차례의 우승을 한 바 있다.

뉴욕 필하모닉, 페이 드 라 로와르 오케스트라에서 객원단원으로 활동했고 뉴 월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아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주자를 역임했으며,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NHK심포니 오케스트라,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한 바 있다. 실내악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실내악 음악 페스티벌에 초청연주회를 가진 바 있으며, 현재 국내최초의 상주 실내악단인 금호아트홀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의 창단 멤버이자 아울로스 목관5중주의 멤버로서 국내 클래식 음악계의 실내악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윤혜리는 스페인 테네리페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플루티스트로 활동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본 플루트 컨벤션 초청 독주회, 제2회 세계 플루트 콩그레스 한국대표, 제2회 아시아 플루트 연맹 서울대 초청 및 주관, 2009 고베 국제 플루트 콩쿠르 심사위원 위촉 등, 한국을 대표하는 플루티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삼성클래식스의 "Elegia" 음반을 발매하였으며, 프랑스 포르닉 국제 페스티벌의 창단멤버로서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Program

SNU Flute Ensemble

W.A. Mozart	Overture to "The Marriage of Figaro" for 4Flutes
J.S. Bach	Sheep May Safely Graze for Flute Choir
G. Rossini	Final from 'William Tell' Overture for Flute Choir

SNU Woodwind Octet

W.A. Mozart	Serenade No.11 in E-flat Major, K.375
--------------------	---------------------------------------

S.WITH

Astor Piazzola	Libertango
Stephen Sondheim	Send In The Clowns
Georges Bizet	Carmen Fantasy for Saxophone Quartet



SNU Flute Ensemble

윤혜리교수, 김경아, 한지은, 권영인, 유지홍, 송경훈
양미현, 윤슬기, 이예진, 송다인, 박신준

W.A.Mozart Overture to "The Marriage of Figaro" for 4Flutes

고전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모차르트의 오페라 중의 하나인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작품의 서곡이다. 이작품은 보마르세의 희극 피가로의 결혼을 기초로하여 1786년에 작곡된 코믹 오페라입니다. 서곡이 유명하여 따로 연주되는 경우가 많으며 4대의 플루트를 위한 카르텔트로 편곡되었다.

J.S. Bach Sheep May Safely Graze for Flute Choir

바흐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속 칸타타 "양떼는 평화스럽게 풀을 뜯고"이다. 일명 사냥 칸타타는 작센공 크리스티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곡이다. 세속 칸타타는 종교 칸타타와는 달리 결혼축하, 생일축하 등을 목적으로 종교 칸타타에 비해서 가볍고 떠들썩하지만, 음악적으로는 대단히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G. Rossini Final from 'William Tell' Overture for Flute Choir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작곡가 로시니의 오페라 "윌리엄 텔(1829)"은 오스트리아에 대한 하던 가상의 스위스인 '빌헬름 텔'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삼고 있다. 총 4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로시니의 최후의 오페라로 유명하다. 이 서곡 또한 크게 새벽, 폭풍우, 고요함, 스위스인의 행진의 4부로 나뉘어져 있다.



SNU Woodwind Octet. 목관 8중주

Ob. 김예은 김아휘 CL. 이진아 김주민
Bn. 김지혜 전지수 Hn. 조상현 이호권

W.A. Mozart

Serenade No.11 in E-flat Major, K.375

모짜르트는 총 세네나데는 13개의 세레나데를 작곡했다. 각기 다른 편성으로 작곡되었는데 11번은 목관 8중주로 편성되었다.

목관 8중주는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이 두명씩 연주하게 된다. 세레나데 11번은 목관 8중주의 대표적인 곡이며, 오늘 날 많은 연주 레퍼토리로 쓰이고 있다. 총 5악장 구성으로 모짜르트의 아름다운 선율을 잘 들을 수 있다.



S.WITH 색소폰 4중주팀

Sop.sax 여요한 Alto.sax 김수룡
Tenor.sax 최영현 Bari.sax 장원진

Astor Piazzolla Libertango

아르헨티나의 탱고음악 작곡가이자 반도네온 연주자인 아스트로 피아졸라가 하층민의 음악이었던 아르헨티나 탱고를 새로운 누에보탱고(Nuevo Tango)로 발전시켜 클래식 음악으로 승화시킨 1974년에 발표된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대표작이다.

Stephen Sondheim Send In The Clowns

스티븐 손데임이 작사,작곡한 발라드이다 이곡은 화려한데는 없지만 절실하게 마음에 다가오는 아름다움과 드라마틱한 명곡이며 이 뮤지컬의 가장 깊은 넘버로서 호평이 되었다.

Georges Bizet Carmen Fantasy- for Saxophone Quartet

카르멘 판타지(Carmen Fantasy)는 조르주 비제가 작곡한 4막의 오페라 코미크이다. 프로스페르 메리메의 동명의 이야기를 기초로 만들어졌다. 1875년 3월 초연되었다. 이 첫 공연은 실패로 여겨져, 비평가들이 부도덕하고, 표면적이라며 비난하였다. 오늘날 이 오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오페라 중의 하나가 되었다.이 작품은 한 불같은 성격을 지닌 아름답고 유혹적인 집시 여인, 카르멘에 관한 이야기이다.

10.28 오후4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73동)

제4회 학생 오디션 팀

(랑데뷰 콰르텟, 이디스 콰르텟)



Rendezvous Quartet 랑데뷰 콰르텟

서울대학교 기악과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이루어진 랑데뷰 스트링콰르텟은 이름 뜻대로 '화합' '만남'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에 창단되었다. 창단 이래 예술의 전당 힐링 & 토크 콘서트 연주 등 활발한 실내악 연주를 펼치고 있으며 2014년에는 금호 영체임버 콘서트에 합격하여 11월 연주를 앞두고 있으며, TNB 콩쿠르에 실내악부분 1위를 수상하였다.

장윤화 1st Violin

서울대학교 기악과 2학년 재학중 | 서울예술고등학교, 예원학교 졸업 | 2014 TNB 콩쿠르 실내악부분 1위
2011 해외파견콩쿠르 2위 | 2010 신예콩쿠르 1위 | 2010 LG 사랑의 음악학교 수료
2010 국제청소년문예협회 대상 | 2007 음연콩쿠르 1위 | 2004 한국일보콩쿠르 1위 | 사사 김홍준, 유시연, 이선이

유정민 2nd Violin

서울대학교 기악과 2학년 재학중 | 서울예술고등학교, 예원학교 졸업 | 2014 TNB 콩쿠르 실내악부분 1위
2012 비로크합주단콩쿠르 3위 | 2010 CMS 음악 콩쿠르 1위 | 2008 TBC콩쿠르 2위
2007 서울 청소년 실내악 콩쿠르 3위 | 2005 성정콩쿠르 1위 | 2005 음악저널 콩쿠르 2위
2005 한국일보콩쿠르 2위 | 사사 안지윤, 이경선, 이선이, 데니스 김

홍은주 Viola

서울대학교 기악과 1학년 재학중 | 2014 TNB 콩쿠르 실내악부분 1위 | 2014 서울 솔리스트 앙상블 협연
2013 월드바 국립 방송교향악단 협연 | 2010 파리레오폴드벨랑콩쿠르 1위 | 2010 파리 한국문화원 초청연주
2005 국민일보한세대콩쿠르 2위 |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협연 | 서울 챔버 앙상블 협연
서울 아카데미 앙상블 협연 | 구리시 교향악단 협연 | 음악교육신문사 영이티스트 초청 연주
사사 최은식, 이수민, 이서영

백현경 Violincello

서울대학교 기악과 2학년 재학중 | 서울예술고등학교, 예원학교 졸업 | 2014 TNB 콩쿠르 실내악부분 1위
2007 음악교육신문사 1등 | 2006 성정콩쿠르 1위 | 2006 금호영재독주회 | 2005 이화경향콩쿠르 3위
잘츠부르크 오케스트라 협연 | 사사 윤영숙, 신지숙

Program

F.J. Haydn

String quartet op.76 No.4 'Sunrise'



Edith Quartet 이디스 콰르텟

서울대학교 현악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Edith Quartet'은 다양한 무대를 통해 정통 클래식과 청중이 원하는 다양한 장르의 레파토리를 연주하여 청중들에게 다가가고 함께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 창단되었다. 11월 16일에는 예술의전당 IBK홀에서 연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번에 연주하는 라벨 현악사중주는 라벨이 「음악의 구성 의지(意志)에 대한」 최초의 작품이다. 또한 표현의 내용으로 보아서도 이것은 그의 피에 섞인 스페인풍, 바스크풍의 정열과 다소 그로테스크한 표현 계열 - 즉 《거울》, 《밤의 가스파르》, 《스페인 랍소디》, 《스페인의 한 때》 등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전이(典雅)하고 고상한 작품계열 -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 《물의 장난》, 《다프니스와 클로에》, 《마 메르 루아》, 《서주와 알레그로》 등에 속해 있는 작품이다. 생생한 주제가 정열적으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전체적 틀로 본다면 이러한 생생한 표현들조차 서정적으로 정돈되어있다.



김소정 1st Violin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 음악저널 전체대상 | 서울예고 정기연주회 협연
현 서울대학교 2학년 재학중 | 사사 송지원, 김홍준, 백주영



김예지 2nd Violin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 세계일보음악콩쿠르 1위
이화경향콩쿠르 3위 | 코리아헤럴드음악콩쿠르 1위 | 음악저널콩쿠르 1위
예원음악콩쿠르 1위 | 소년한국일보콩쿠르 은상
인천시향, 성남시향 협연 | 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2학년 재학중 | 사사 이경선



윤유리 Viola

서울예술고등학교 실기우수자 및 수석졸업 | 음악협회콩쿨 1위 | 세계일보음악콩쿨 2위
코리아헤럴드콩쿨 1위 | 현 서울대학교 2학년 재학중 | 사사 이수민, 최은식



민서연 Cello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 이화경향콩쿨 2위
해외파견콩쿨 1위 | 세계일보음악콩쿨 1위 | 스트라드콩쿨 1위 | 서울아카데미양상블 협연
현 서울대학교 2학년 재학중 | 사사 정선아, 백청심

11.4 오후4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73동)

제5회 **CMB567**

국악과 현대음악의 만남

CMB(Contemporary Music Band) **567**

CMB(Contemporary Music Band)567은 현대음악과 한국음악을 접목하여 지금 이시대의 우리음악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결성되었다.

5명의 작곡가와 7명의 연주자들로 전자음악을 포함한 플루트, 해금 가야금, 타악(서양과 국악), 베이스 클라리넷 그리고 베이스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CMB567은 순수 창작음악 단체로서 각자 전문적 영역에서 작곡과 연주활동을 활발히 함과 동시에, 동시대의 음악적 연대감과 유대감을 갖고 주기적으로 모여 창작음악회를 개최하고있다.



Program

01 이화우 梨花雨

작곡 : 이정면 연주 : 박성신 (25현 가야금)

이화우 훔날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 계랑 -

02 종생기 終生記 1

작곡 : 황호준 연주 : 김준희 (해금), 양영호(베이스기타), 서수복(타악)

작가 이상이 죽기 한달전에 쓴 소설 〈종생기〉*에서 영감을 받아 쓴 작품으로 소설 속에 등장하는 나의 심리를 해금과 베이스 기타의 아티클레이션-양상블을 통해 표현해 보았다.

*종생기 - 삶을 마치는 기록

03 호접지몽 胡蝶之夢

작곡 : 황호준 연주 : 박성신 (25현 가야금), 서수복 (타악)

나는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춤춘다.
초목들도 바람이 만들어 주는 장단에 나와 함께 춤을 추고 꽃들은 햇살이 만들어 주는 화음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딘가 모르게 온통 일그러져 있다. 꿈에서 깨어나는 찰나에는 '내'가 꿈을 꾸어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인 내가 꿈을 꾸어 사람이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 현실은 꿈이 되고, 꿈은 현실이 되어 버린다. 나는 겨우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의 차원에 도달하지만 곧바로 꿈에서 보다 더 일그러진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격렬한 감정의 전투를 치루고 나서야 새삼스레 내가 세상에 존재함을 믿을 수 있다. 비로소 오래전 구겨져 던져 버렸던 데카르트의 헛소리를 낚은 부적인양 집어들고 안도한다.

04 눈속의 단풍잎

작곡 : 김기영 연주 : 김준희 (해금), 박성신(25현 가야금)

눈(eye)과 눈(snow) 속에 담긴 친구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떨어지고 비쳐진 단풍잎의 사연과 흔적을 해금과 25현가야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05 겨울

작곡 : 박영란 연주 : 김준희 (해금), 박성신(25현 가야금), 서수복 (타악)

하얀 눈이 펄펄 내리는 고요한 대지위에 서서 가만히 눈을 감고 땅 속 깊은 곳의 요동치는 박동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겨울은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여린 봄을 위해 여름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일하고 관조적인 외향과는 달리 내적으로는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가을에 비해 더 할 수 없이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땅 속이 뒤틀리는 뼈아픈 산고를 치러낸다. 땅의 정적 이면서도 동적인 겨울을 표현하기 위해 로그드럼과 장구를 독립적인 악기로 사용하였고, 강렬한 느낌의 겨울을 표현하기 위해 리듬의 반복과 변형을 중요한 음악적 요소로 사용하였다.

사회 김기영

Profile



해금 김준희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악장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CMB567 동인



가아금 박성신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국악학과 박사과정 수료
정동극장 예술단, 세종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 역임
경기도국악경연대회 기악부문 대상.
CMB567 동인



타악 서수복
단국대학교 국악과 졸업 및 동대학원졸업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부수석단원
CMB567 동인



베이스기타 양형호
미국 M.I.(B.I.T)에서 베이스 전공
Acidrain, theFrontline, 우주낙타, d.s.b 멤버로
앨범 발매와 연주 활동
추계예대, 목원대, 백석대 출강 역임
CMB567 동인



작곡 김기영
경계가 없는 음악가로 칭하는 작곡가, 연주자, 무용연출가로 활동.
1996년 ACC(Asian Cultural Council)에서 수여한 상금으로 New York에서 전위예술 연구. 1999년 Japan Foundation(일본 국제 교류 기금) 초청으로 일본에서 극작가 겸 연출가 고 기시다 리오와 공동작업. 국립국악원 위촉작 '복석양에서 남석양으로' 외 다수의 위촉작과 차범석 '산불' 외 70여편의 무용과 연극 작곡. CMB567 리더



작곡 박영란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작곡전공 박사
2001 국제현대음악제(IJSCM)작곡콩쿨 우승
2004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작곡콩쿨 대상
2009 하이든트리오 아이젠슈타트 DTH 프로젝트 한국대표작곡가
현 여성작곡가협회 부회장, 상명대 뉴미디어작곡과 겸임교수
국민대 출강 CMB567 동인



작곡 이정면
서원대학교 음악과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전문사 수료
경기도립국악단,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 역임
제1회 KBS 대학국악가요제, SBS통일가요제 대상
해금협주곡 〈활의 노래〉 〈양청도드리주제에 의한 실내악〉 등 다수 작곡
현 이음사운드 대표, CMB567 동인



작곡 황호준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 동대학원 졸업
오페라 〈아랑〉, 뮤지컬 〈왕세자실종사건〉, 음악극 〈간밤이야기〉, 무용극 〈풍속화첩〉, 연극 〈M버터플라이〉, 국악관현악곡 〈검은평화〉 등 다양한 편성의 400여곡을 작편곡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겸임교수, CMB567 동인